

부처님오신날 봉축 꽃꽂이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불기2556년 부처님 오신 뜻을 봉축하며 한국불교 연화꽃꽂이 연합회 창립 24주년을 축하하는 불교 꽃꽂이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만민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축제일입니다. 꽃은 수행과 장엄찬탄을 나타내며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도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보명스님께서 연화꽃꽂이 연합회를 창립하여 올해로 2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4년 동안 꽃 문화를 통하여 메마른 현대인의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어루만지며, 불교문화 전달에 앞장서 온 헌신은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 성직자와 함께 꽃을 통하여 종교연합의 문을 열어가자는 취지를 실천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연화꽃꽂이 연합회 전시회를 통해서 종교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전시회를 이끌어 주신 보명스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작품을 선보이신 회원님들과 축제의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의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씨앗이 꽃의 씨앗과 다름없어 우리의 일상마저 향기롭게 활짝 필 것을 축원하며, 꽃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